

# 대학교 양과정으로서 결혼준비교육의 성별에 따른 효과성 연구\*

Gender and the Impact of Premarital Education Course among University Students

신라대학교 대학원 가족상담학과

석사 이숙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학과

교수 전영주

Department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Silla University

Master : Lee, Sook-Hee

Department of Family Studies, Silla University

Professor : Chun, Young-Ju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a premarital educational program as an elective course at a university. Six hundred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course "Family and Marriage" at a university in Pusan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The students completed the survey questionnaire about attitudes toward marriage, family, love, spouse, sexuality and gender-roles, before and after the course. The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t-test, two-Way ANOVA.

The results showed, first of all, there was no significant impact of the education on the students' attitudes on marriage and family, when gender was not introduced as a factor. However, looking closely, there was an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the attitudes in the impact of the education. As a result, the gender gap in terms of the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the family that existed before the course was reduced after the course. Also,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 love, spouse, sexuality, and gender-roles before and after the course, and there were significant impacts of the course for both genders, albeit in different directions.

▲ 주요어(Key Words) : 결혼준비교육(premarital education), 결혼관(attitudes toward marriage), 가족관(attitudes toward family), 사랑관(attitudes toward love), 배우자관(attitudes toward spouse), 성의식(attitudes toward sexuality), 성역할관(attitudes gender role)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결혼 5년 미만의 이혼율이 2002년에 26.9%, 2003년에는 24.6%로 최근 결혼초기 이혼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4). 이는 결혼에 대한 개인적 준비가 미비하여,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Collins, 1993 ; 김혜선, 1992). 특히 오늘날 결혼에 대한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젊은층이 증가하고, 결혼 연령 또한 늦추어지고 있으며, 이혼율과 재혼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현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지은, 1993).

\* 본 연구는 2003도 신라대학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주 저 자 : 이숙희 (E-mail : lotus-20@hanmail.net)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결혼준비는 상담에 의한 치료적이고 회복적인 관점에서 교육에 의한 예방적인 관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Clinebell(1975)은 인간 잠재능력에의 접근방법으로 성장 모델을 제안하였고, Mace(1979)는 Marriage Enrichment Movement의 대표적인 주창자로 결혼준비교육을 통해 결혼 및 가족 생활에 대한 성장 촉진을 추구하고 결혼관계 및 결혼생활의 욕구향상을 위한 수단과 기술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오윤자, 2001). 준비의 측면에서 결혼 전의 관계 훈련은 결혼적응에 도움이 되며 (Center for Marriage and Family, 1995 ; Stanley & Markham, 1997), 미혼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 프로그램은 안정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된다(Silliman, Stanley, Coffin, Markman & Jordan, 2001)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혜선, 신수아, 2002). 이것은 결혼준비는 곧 결혼안정성을 예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임선영, 2002).

공식적인 결혼준비교육은 1924년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Groves에 의해 결혼 및 가정생활 준비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강좌가 열렸고 1930년대 초에 Merrill-Palmer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결혼준비교육이 시작되었다(Stahmann, Salts, 1993). 보스턴 대학에서 강좌가 시작된 이후 25년 동안에 500개 이상의 대학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과목들이 개설되었다(박말순, 1998). 이와 같이 미국은 일찍이 결혼준비교육 및 상담이 시작 발전되었고 오늘날 그 효과 여부에 대한 평가와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며(박미경, 1997), 결혼준비교육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 공공정책으로 추진되어 결혼 전 교육의 참가를 의무화하거나 교육참가 커플에게는 특정한 혜택을 주는 등의 법이 입법화되었거나 준비중에 있는 실정이다(Carroll, Doherty, 2003).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결혼준비교육은 70년대부터 실시되었으며(김난희, 1999), 종교기관, 평생교육기관과 시민단체, 대학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종교기관의 결혼준비교육은 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강경아, 2002), 평생교육기관과 시민단체의 결혼준비교육은 70년대에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결혼준비교육은 70년대에 미혼여성이나 예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준비교육이 주류를 이루었고, 80년대에 이르러 서강대 철학과의 「결혼준비특강」이 본격적인 대학강좌로서 시작되었으며 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 형성을 교육목표로 하였다. 90년대 들어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결혼준비모임」이 실시되었고, 이때부터 결혼준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박미경, 1997). 현재(2003년) 전국 4년제 대학 중 20여개 정도의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결혼준비와 관련한 강좌가 개설되어있다. 이들은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고 결혼생활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인 성숙과 준비를 강조하는 결혼 준비에 관한 강좌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나

모형개발에 치중하고 있으며(박미경, 1997),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단위식 결혼준비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에서 남녀의 성차에 따른 차이가 보고된 바 있는데 최근 연구 중에서 가장 큰 남녀의 차이로 '관심'과 '가치관'이 지적된 바 있다(이재림, 옥선화, 이경희, 2002). 따라서 이제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남녀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결혼준비교육이 남녀의 가치관 차이를 줄여준다면, 이성교재나 부부생활에서 성차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을 교육이 예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또한 미혼의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결혼가치관을 정립시켜주는 계기가 되어 높아만가는 이혼율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혼준비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에서 교양교과강좌로 실시하고 있는 결혼준비교육을 받은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교육을 받은 전후의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 등의 영역의 변화를 측정해 보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준비교육의 정의는 Hawse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결혼상대가 정해지기 전에 행해지는 결혼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으로서,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박미경, 1997년에서 재인용).

#### <연구문제>

1. 결혼준비교육으로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결혼관 차이가 줄어들었는가?
2. 결혼준비교육으로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가족관 차이가 줄어들었는가?
3. 결혼준비교육으로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사랑관 차이가 줄어들었는가?
4. 결혼준비교육으로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배우자관 차이가 줄어들었는가?
5. 결혼준비교육으로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성의식 차이가 줄어들었는가?
6. 결혼준비교육으로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성역할관 차이가 줄어들었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결혼준비교육의 효과성

결혼준비교육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교육과 혼전 상담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Arcus, 1993). 이미 개발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중 집단상담의 효과성연구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좌식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전

무한 실정이며, 외국의 경우 몇몇 연구가 있었지만 교육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보고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메타분석(Meta Analysis)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Carroll 외, 2003).

국내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형태의 결혼준비교육의 효과성 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기술의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 박말순(1998)은 결혼준비프로그램이 예비부부의 의사소통기술과 갈등해결기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성별이 주요 변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미향, 김득성(2001)은 결혼 전 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의사소통과 커플의 갈등해결을 향상시켰다고 밝혔으며, 김혜정(1997)의 예비부부를 위한 관계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서도 의사소통과 커플적응척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률(2000)의 연구와 박미경(1997)의 연구에서는 갈등해결능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들을 보면, 변은주(1996)는 참가자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사랑의 비합리적 신념 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차정화, 전영주(2002)는 교제 중인 파트너에 대한 언어적 표현, 관대함, 정서적 지지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결혼준비교육의 효과성 연구를 살펴보면, 갈등의 건설적 해결능력과 결혼 후 어려움에 대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Bader, 1980),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종료 6개월 후에도 부부의 의사소통과 상호문제해결기술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음을 밝혔다 (Guerney, 1977; Ridley et al, 1981). Pretorius와 동료들(Wyk, Schepers, 1992)은 남아공의 백인 40쌍의 약혼 커플을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는데 참여한 집단은 부부관계적용, 서로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기술, 긍정적 강화, 문제해결기술, 친근감 등에서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으며 그 효과는 결혼 6개월 후에도 지속되었다(Carroll 외, 2003). 현재까지 평가되어진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랜 기간의 추후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전 관계증진 프로그램(PREP: Markman, 1988, 1993), 은 프로그램 종료 3년 후 실험집단에서 높은 결혼만족, 낮은 관계불안정성을 보고하였고, 4년 후 연구에서 실험집단은 낮은 부정적 상호작용, 높은 긍정적 상호작용, 낮은 공격성과 낮은 이혼율, 낮은 부부관계파탄, 높은 부부관계만족을 보고하였으나, 5년 후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의 남자들의 폭력적 성향 감소와 의사소통기술의 증가 이외에 통제집단과 다른 차이점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Carroll 외, 2003).

최근 Family Relations(2003년 52권 3호)에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시도한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에 따르면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의 75%가 교육의 경험이 없는 이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Smith, 1980), 이는 결혼 전 커플이나 기혼커플 모두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Bernard & Guerney, 1977; Rosenthal & Rubin, 1982). 특히 관계향상 프로그램은 결혼 전 커플의 감정이입과 자기의사표현 기술을 증진시켰으며(Ridley, 1980), 6개월 경과 후 추후조사에서도 여전히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Avery, 1980). 반면 Wright (1981)의 연구에서는 기혼부부 1,000 쌍 중, 적어도 6회 이상의 교육을 받은 커플들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 반면 1-2회 정도의 교육을 받은 커플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Olson, 1983). Buckner와 Salts(1985)의 결혼 전 커플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관계의 역학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강좌식 결혼준비교육에 관해서는, Norem(1980)은 6-8주 간 지속된 5개의 결혼준비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결과 강좌식 프로그램이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고 보고하였고, Olson(1983) 역시 대단위식 강좌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Mace는 단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변화가 미미한 반면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측정 가능한 행동변화가 일어났음을 밝혔다(김혜석, 1990에서 재인용). 반면 Williams는 미국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들의 이혼이 전체인구에 비해 낮은 이유가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하는 혼전상담 프로그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김혜정, 1997에서 재인용). 이는 강좌식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Nickols, Fournier & Nickols(1986)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에 관련한 요인을 고찰한 결과, 커플을 위한 관계기술 발달이나 과정지향적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강의와 토론식의 프로그램보다 더 효율적임을 지적하였다.

## 2. 대학교양과정으로서의 결혼준비교육

대학교양과정은 전공교육과정 및 선택교육과정과 더불어 대학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체계로서(이은준, 1994) 전문적 직업교육에 대비되고 교육을 받을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공통의 교육이다(고영철, 1985). 개인적으로는 지성과 판단력과 가치선택의 힘을 기르기 위한 성숙한 인격함양의 교육이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요구와 이상에 적합한 태도 및 능력의 발달과 지도자적 인격을 기르는 교육이며 학문적으로는 학문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지적경험을 갖도록 하는 광의의 교육이라 정의 할 수 있다(고영철, 1985).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결혼준비교육이 대학교양과정으로 처음 실시된 것은 80년대의 서강대학교 「결혼준비특강」이며, 최근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결혼준비교육으로는 강남대학교의 「결혼과 가정」을 비롯하여 경남대학교의 「결혼과 가족생활」, 경북대학교의 「결혼과 가족관계」, 경희대학교의 「결혼과 가족」, 고신대학교의 「결혼과 가족」, 동아대학교의 「결혼과 가정」, 동의대학교의 「결혼과 가족관계」, 부산대학교의 「새로 보는 결혼과 가족」, 상명대학교의 「결혼준비특강」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서강대학교의 「결혼준비특강」, 서울대학교의 「결혼과 가족」, 서원대학교의

「결혼과 가족」, 수원대학교의 「결혼과 가족」, 신라대학교의 「가족과 결혼」, 영남대학교의 「결혼과 가족」, 인제대학교의 「결혼준비교육」, 전북대학교의 「결혼과 가족관계」, 중앙대학교의 「결혼과 가족」, 충북대학교의 「결혼과 가족」, 한국교원대학교의

「결혼과 가족」, 한양대학교의 「결혼과 가정」, 한양여자대학교의 「결혼과 가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고려대학교의 「결혼과 가족」, 명지대학교의 「결혼과 가족」 등 전국의 각 대학교에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1> 참고)

<표 1> 국내대학에 개설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예

프로그램명	실시대학명	교육 목표
결혼과 가정	강남대학교	성의 이해와 성과 사랑 그리고 성과 결혼 등을 다루고 가정윤리와 이성문제, 배우자 선택, 성공적 결혼, 가족 계획 등으로 결혼문제를 살피고 성차별, 혼전정사, 혼외정사, 재혼, 임신중절, 인공임신, 성폭행 등 성문제를 다룬다.
결혼과 가족생활	경남대학교	결혼과 가족을 사회적 제도라는 객관적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 및 결혼을 결정하고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며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과 가족관계	경북대학교	결혼과 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탐구를 통해 개인이 건강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키우고 바람직한 결혼생활의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결혼과 가족	경희대학교	가족의 위치와 의의를 제시하고, 결혼과 가족은 어떤 연결점을 가지는지 또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족자원과 구성원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유형을 제시하여 가족위기의 진단과 예방을 모색한다.
결혼과 가족	고신대학교	인간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의 최초의 장이며 올바른 대인관계를 형성해가는는 일차적 현장임을 깨닫고 인생의 첫 시작인 결혼과 가족의 역동적인 변천과정과 성숙한 인간관계의 학문적 관점으로 재조명하며 아울러, 기독교 학문적 관점으로 조망함과 우리들의 가정을 진단하고 올바른 삶의 지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학문의 초석을 마련한다.
결혼과 가정	동아대학교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환경속에 결혼, 가족과 성,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내 주요 이슈들을 고찰함으로써 올바른 결혼관과 미래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설계하고 실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결혼과 가족관계	동의대학교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가정생활을 용용하며 나아가 이웃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한다.
새로 보는 결혼과 가족	부산대학교	가족관계, 결혼, 가족 내 인간관계의 이해를 돋고 가족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결혼준비특강	상명대학교	가족의 발생과 결혼의 의미, 적용, 가족간의 상호관계, 시대에 따른 가족의 변화와 문제점등을 고찰 분석하여 견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결혼준비특강	서강대학교	혼인을 올바로 이해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한다.
결혼과 가족	서울대학교	다양화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현재와 미래에 접하게 될 결혼과 가족이라는 내용을 탐구함으로써 당면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에 대비하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는다.
결혼과 가족	서원대학교	결혼의 의미와 과정, 인간생활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가족 내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돋고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내 관계의 변화를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학습한다.
결혼과 가족	수원대학교	이성교제, 배우자, 결혼과정,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원만하고 견전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가족과 결혼	신라대학교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가족의 방향을 설정한다.
결혼과 가족	영남대학교	결혼과 발달단계에 따른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켜보다 원만한 가정생활과 견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준비교육	인제대학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체적인 기술 그리고 가족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결혼과 가족관계	전북대학교	현대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 자신과 관계에 대한 이해, 결혼에 이르는 과정, 건강한 가족의 형성을 위한 기본 지식과 태도를 학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결혼과 가족생활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과 가족	중앙대학교	개인의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결혼의 전과정을 살펴 보는 것과 함께 사랑과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과 가족	충북대학교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통해 결혼과 가족의 선택과 적응에 실제적으로 응용 실천하는데 목적을 둔다.
결혼과 가족	한국교원대학교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 문화, 규범, 행위를 비판적으로 검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여 민주적이고 인간 평등적인 시각에서 결혼과 가족생활을 이해하게 한다.
결혼과 가정	한양대학교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존속되는 결혼에 대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시각을 형성하게 되며 결혼과 가족, 가정의 의의와 중요성을 깨닫고 준비하게 한다.
결혼과 가정	한양여자대학교	가정의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한다.

출처 : 각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기준년도 : 2003년)

이러한 결혼준비교육의 대학생과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중에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혜석(1990), 정민자(1996)의 연구에서는 미혼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유영주, 오윤자, 이정연(1995)은 개인과 가족의 성장 잠재력의 증진과 결혼생활의 문제해결 능력강화 등을 다루면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프로그램모형을 개발하였다. 홍달아기, 박경옥(2000)은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홍달아기, 신현실(2001)은 결혼 후 조기이혼을 방지하고 가정문제 발생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오윤자(2001)의 연구는 교육학적 관점을 기초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였고, 박미경(1997)은 자각과 결혼에 대한 대처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였다. 정미향 외(2001)는 결혼 전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사전-사후-추후검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결혼준비교육의 일환으로서 대학생들의 이성관계증진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변은주(1996)는 이성교제를 위한 집단상담 연구를 수행하여 상호 인격성숙과 이성에 대한 이해 증진, 결혼생활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이재림 외 2인(2002) 연구에서는 이성관계에서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친밀감을 증진시키며 자신과 상대방만의 문제라고 여겼던 부분들이 보편적인 남녀차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차정화 외(2002)는 근원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아에 대한 탐구, 즉 교제중인 파트너의 사랑에 대한 이해, 갈등대처 및 의사소통향상을 목적으로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3. 결혼관과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에서의 성차

성별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생물학, 언어학, 사회학, 의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차는 유전적 요인과 사회학습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Grey, 2002)의 비유와 같이 성차는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 등에서 남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특히 이성교제나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성차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이성교제에서 여성들은 친밀감과 의사소통에 관심이 있지만, 남성들은 도구적인 도움이나 성적 행동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이재림 외 2인 2002; Cancian, 1985)

최근에 실시한 남녀대학생(미혼남녀) 대상의 결혼, 가족, 사랑, 배우자, 성의식, 성역할의 가치관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면 성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가 주목된다(성한기, 1997; 한남제,

1987; 김경신, 김오남, 윤상희, 1995). 우선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남학생은 정서적 안정을, 여학생은 사랑의 완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성한기, 1997).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4%였고, 이중에 남학생은 66%, 여학생은 38%로서 성별에 따라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최근에 올수록 결혼 찬성 비율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으며 성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성한기, 1997). 특히 여학생의 경우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희, 1999).

가족관에 있어 가정 내에서의 부부의 지위에 대해서는 남학생 중 과반수 이상은 남편이 부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학생의 과반수 이상은 부부가 평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부에게 적용되는 이 중기준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은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중기준의 적용을 주장하는 비율이 높았다(한남제, 1987).

사랑의 의미에서도 남성은 보다 적극적이며 충동적이고 성적인 반면 여성들은 실제적이고 친구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려한다고 지적되었다(이재림 외 2인 2002; Schwartz & Scott, 1997에서 재인용). 사랑관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랑에 대해 더 적극적 태도를 보였는데, 특히 혼신과 열정에서 그러하였다(김경신 외, 1995). 열정에서 남학생이 사랑의 몰입, 욕구 등을 사랑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며, 혼신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사랑의 지속성이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사랑에 대한 태도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이성교제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적극적,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결과로 이해된다(김경신 외 2인 1995).

배우자관의 경우 남녀 모두 비교적 동질적인 배우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 취미, 인생목표나 가치관 등의 변인에서 남녀간 차이를 보여 남성보다 여성이 더 동질적 조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관계의 상호작용적 조건중에서는 상호평등적 존중, 상호독립성유지, 역할교환 등의 변인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 남성이 여전히 전통적 역할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 김오남, 이선미, 1995).

성의식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개방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이선희, 한성현, 이명선, 조희숙, 채유미, 유승현, 2000). 순결의식에서 남학생이 더 개방적이었으며, 혼전 동거나 혼전 성관계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더 긍정적이었다. 성개념 및 가치관에서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성지식에서도 남학생이 높았다. 성허용 의식에서 여학생은 결혼을 약속한 경우에 22%, 남학생은 76%가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성행동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높았다(김경신 외 2인 1995).

성역할관은 남성이 보다 성차별적인 성역할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더 보수적이거나(김상희, 1999; 김경신, 이선미, 1998), 아니면 가사분담이나 역할 고정관념에서는 진보적이면서도 남녀의 기본적 능력, 여성다움의 고전적 가치 등에 있어서는 성 차별적인 가치관을 나타내서 이중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 이선미, 1998).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들은 이성교제나 결혼생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성차는 결혼준비교육을 통해 좁혀질 수 있으며, 보다 평등하고 개방적인 결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 S대학교 학생 중 2002년 2학기 교양과목인 <가족과 결혼>을 수강하는 약 600명의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는 3개월 간격으로 사전·사후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사전 검사는 개강일인 2002년 8월 27, 28일 양일간 실시하였으며 538부가 회수되었고, 사후검사는 2학기 수업 종강 일인 2002년 11월 26, 27일 양일간 실시되어 471부가 회수되었다. 각 설문지는 자신의 학번을 ID로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서에는 3명의 강사들이 사전에 숙지한 검사 시 유의사항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15~20분 가량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강의가 시작되는 첫날 수업시작 전에 실시하고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사후검사는 강의가 끝나는 날 수업 종료 20분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 된 설문지 중에서 사전·사후 두 설문에 응한 응답자를 선별해 내고 그 중에서 다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와 25세를 초과하는 연령을 제외한 총 4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성별'과 '결혼준비교육'이라는 두개의 명목척도이다. '결혼준비교육'은 매주 100분씩, 13주간에 걸쳐 이루어졌고(시험시간 제외), 6분반의 총 594명을 3명의 강사가 각기 2개 분반씩 나누어 강의하였다. 6분반 모두 1~7주까지는 '결혼준비'에 관하여 강의가 진행되었고, 중간고사 이후 9주~14주까지는 '결혼의 적응'을 공통적으로 다루었다. 수업 진행 방법은 강의와 토론, 발표, 비디오시청으로 이루어졌다.

일관성 있는 진행을 위해 강사들이 사전 모임을 가졌고, 이 기숙, 공미혜, 김득성, 김은경, 손태홍, 오경희, 전영주(2001)의 <결혼의 기술>을 공통교재로 사용하였다. 교재는 가족학 전공 교수 4명과 사회학, 가정학, 법학교수의 공동으로 제작되었다. 본

교재의 강의 목표는 결혼과 부부적응 준비에 초점을 두며 결혼준비에 있어 남녀의 성차에 따른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표 2> 주별 강의 주제

주별	수업 내용 (주제)
1	Orientation
2	21세기의 결혼 이야기(결혼관)
3	혼자살기와 함께살기(결혼관)
4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성역학)
5	사랑의 기술(사랑관)
6	성 이해하기(성의식)
7	연애와 배우자 고르기(배우자관)
8	중간고사
9	결혼생활 계획하기(가족관)
10	좋은 의사소통과 공정한 싸움
11	다양한 인생주기의 결혼생활
12	가족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가족관)
13	부부: 해어짐과 새로운 만남, 결혼생활: 교육과 치료
14	가족법 따라잡기
15	기말고사

#####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의 여섯변수로, 이들을 주요 종속변수로 선정한 근거는 선행연구(김혜선, 한은주, 1998; 김경신, 이선미, 1998; 김경신, 김오남, 윤상희, 1997; 김경신, 김오남, 윤상희, 1995; 김경신, 김오남, 이선미, 1995)를 통해 이들 변수가 결혼준비교육의 주요 관련변인이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 (1) 결혼관

결혼관 척도는 김혜선, 한은주(1998)가 개발한 청년기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척도에서 결혼가치관 10문항을 추출 사용하였다. 결혼관은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보는 것으로 5점 Likert식으로 구성되었다. 높은 점수일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이라는 가치관을 의미하며, 낮은 점수일수록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계수는 사전검사에서 .80, 사후검사에서 .82로 나타났다.

##### (2) 가족관

가족관 척도는 김혜선, 한은주(1998)가 개발한 청년기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척도에서 가족생활경험 7문항과 자녀 및 양육관 4문항을 추출하였고 2문항은 본 연구자가 구성 추가하여 전

체 1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가족관은 긍정적인 가족생활을 경험한 이가 결혼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이라 보고 5점 Likert식으로 구성되었다. 높은 점수일수록 양성이 평등한 개방적인 가족관을, 낮은 점수일수록 양성이 평등하지 못한 덜개방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Cronbach  $\alpha$ 계수는 사전검사에서 .71, 사후검사에서 .76으로 나타났다.

#### (3) 사랑관

사랑관 척도는 김정옥(1995)이 사용한 애정관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3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사랑의 낭만성의 정도를 알아보며 5점 Likert식으로 구성되었다. 높은 점수일수록 사랑에 대해 합리적 신념을 가지며 환상과 편견에서 벗어난 현실적인 가치관을, 낮은 점수일수록 결혼과 같은 구속을 원치 않고 언약이나 확신없이 사랑하는 낭만적인 사랑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 계수는 사전검사에서 .80, 사후검사에서 .83으로 나타났다.

#### (4) 배우자관

배우자선택 척도는 김경신 외 2인(1997)이 강은숙(1981), 송재희(1988), 홍준숙(1987), Melton과 Thomas(1976), Sura 등(1990)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제작한 배우자 선택조건 척도 중 10문항을 추출 사용하였다. 배우자관은 외적, 내적 배우자선택조건과 동질적, 상호작용적 배우자선택조건을 알아보며 5점 Likert식이다. 높은 점수일수록 상호평등적존중, 상호독립성유지, 역할교환 등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배우자관을, 낮은 점수일수록 전통적인 역할개념을 가지고 있는 불평등적인 배우자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배우자선택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를 살펴 본 결과 사전검사에서 .52, 사후검사에서 .57로 신뢰도 계수가 낮게 분석되어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다섯문항을 삭제하였다. 삭제 후 사전검사 .70, 사후검사 .78로 나타났다.

#### (5) 성의식

성의식 척도는 김경신 외 2인(1997)이 박말순(1983), 이유정(1989) 등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한 것 중 14문항을 추출 사용하였다. 성의식은 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며 5점 Likert식이다. 높은 점수일수록 성자유 풍토에 편승한 개방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점수일수록 결백주의를 나타내는 보수적 성향의 덜 개방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Cronbach  $\alpha$ 계수는 사전검사에서 .83, 사후검사에서 .81로 나타났다.

#### (6) 성역할관

성역할관 척도는 Felid(1978)의 척도를 이석재(1999)가 번역한 9개 문항(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0)을 사용하였다. 성역할관은 여성의 성역할과 행동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보며 5점 Likert식이다. 높은 점수일수록 남성지배와 여성

종속에서 벗어난 평등주의적 성역할관이며, 낮은 점수일수록 성차별주의적으로 평가된다. Cronbach  $\alpha$ 계수를 살펴 본 결과, 사전검사에서 .58, 사후검사에서 .60으로 낮게 분석되어 8번 문항을 삭제한 후 사전·사후검사 모두 .71로 나타났다.

#### 3)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전검사에서는 성별, 연령, 학년, 출생순위, 군복무관계, 이성교제 유무, 이성교제 기간, 결혼유무, 선호하는 결혼형태, 결혼 후 부모님과의 동거계획, 종교, 부모님의 경제력을 물었다. 사후검사에서는 이성교제 유무, 선호하는 결혼형태, 결혼 후 부모님과의 동거 계획 등을 질문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10.0 version을 사용하여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를 산출하였으며, 독립변수는 명목척도인 남녀 성별과 사전 사후 결혼준비교육을, 종속변수는 결혼준비교육의 효과성 지표인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을 변수로 지정하였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각기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의 사전검사 대상자(N=400; 남 142명, 여 258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연령의 범위는 19~25세이고, 평균연령은 21세(SD=2.46)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대부분이 2학년으로 346명(86.5%)을 차지하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125명(31.3%)이 병역을 필하였다. 교제 중인 학생의 경우 교제기간은 6개월 이하가 77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1년~2년이 40명(10.0%), 7개월~1년이 37명(9.3%)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묻는 문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가 196명(49.0%), 불교가 114명(28.5%), 기독교가 55명(13.8%)을 차지하였다.

사전·사후검사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성교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가 사전검사 177명(44.3%), 사후검사 193명(48.3%)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결혼형태를 묻는 질문에 '결혼하겠다'가 사전검사 328명(82%), 사후검사 329명(82.3%)으로 사전·사후검사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동거' 또는 '결혼 전 동거'가 사전검사에서 33명(8.3%), 사후검사에서 40명(10.0%)으로 나타나 사후검사에서 7명이 증가하였다. 독신을 선호하는 이는 사전검사 39명(9.8%), 사후검사 31명(7.8%)으로 사후검사에서 8명이 줄어들었다.

&lt;표 3&gt;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400)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녀	142(35.5) 258(64.5)
연령	연령	평균 = 21.24세 표준편차 = 2.46세 연령범위 = 19~25세
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46(86.5) 41(10.3) 13(3.3)
출생순위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상	200(50.0) 136(34.0) 46(11.5) 18(4.6)
군복무관계	군필 미필	125(31.3) 17(4.3)
교제기간	6개월 이하 7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77(19.3) 37(9.3) 40(10.0) 13(3.3) 12(3.0)
결혼유무	예 아니오	3(0.8) 397(99.3)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종교없음 기타	55(13.8) 114(28.5) 26(6.5) 196(49.0) 9(2.3)
	사전	사후
이성교제여부	예 아니오	177(44.3) 223(55.8) 207(51.8)
결혼형태	결혼 동거 또는 결혼 전 동거 독신	328(82.0) 33(8.3) 39(9.8) 329(82.3) 40(10.0) 31(7.8)

&lt;표 4&gt; 성별, 군복무, 이성교제여부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 검증

변수	구분	성별		군복무여부		이성교제여부	
		남	녀	군필	미필	예	아니오
N		142	258	125	17	117	223
M		27.50	31.27	27.58	26.88	28.96	30.69
SD		6.91	5.98	7.14	5.04	6.17	6.79
t		-5.46***		.39		-2.66**	
M		31.71	34.18	31.91	30.23	32.82	33.69
SD		5.53	5.36	5.53	5.48	5.19	5.79
t		-4.33***		1.17		-1.56	
M		75.47	85.14	75.93	72.11	80.59	82.60
SD		11.51	10.39	10.97	14.87	11.12	12.16
t		-9.66***		1.02		-1.69	
M		15.20	17.82	15.21	14.69	16.70	17.02
SD		5.82	6.02	5.74	6.09	6.14	6.01
t		-4.65***		.32		-.98	
M		49.92	43.57	49.57	52.52	46.83	45.03
SD		6.93	7.91	6.80	7.51	7.86	8.31
t		8.33***		-1.53		2.20*	
M		19.57	23.44	19.48	20.23	21.88	22.22
SD		5.03	4.35	5.17	3.86	4.77	5.11
t		-8.05***		-.72		-.68	

\* p&lt;.05 \*\* p&lt;.01 \*\*\* p&lt;.001 (사전검사 자료 기준)

## 2. 주요변수들과 인구학적 특성과의 차이검증

주요변수들과 성별, 군복무여부, 이성교제여부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자료를 기준으로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은 결혼관( $t=-5.46$ ,  $p<.001$ ), 가족관( $t=-4.33$ ,  $p<.001$ ), 사랑관( $t=-9.66$ ,  $p<.001$ ), 배우자관( $t=-4.65$ ,  $p<.001$ ), 성의식( $t=8.33$ ,  $p<.001$ ), 성역할관( $t=-8.05$ ,  $p<.001$ )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군복무여부는 여섯개 변수 어디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성교제여부는 결혼관( $t=-2.66$ ,  $p<.01$ )과 성의식( $t=2.20$ ,  $p<.05$ )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3. 결혼준비교육과 성별에 따른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의 변화

남녀 성별은 여섯 개의 주요변수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표 4>참조), 남녀 성별과 결혼준비교육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결혼관에 있어 <그림 1>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준비교육실시 이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결혼을 선택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남학생:M=27.50, 여학생:M=31.27), 결혼준비교육을 받은 후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매우 감소하였다(남학생:M=28.79, 여학생:M=29.61). 결혼관의 변화에 대해 결혼준비교육 요인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lt;표 5&gt; 결혼준비교육과 성별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결혼관 (종속변수)						
독립변수	F	사전		사후		
성별	23.55***	M (SD)	남	여	남	여
결혼준비교육	.14		27.50 (6.91)	31.27 (5.98)	28.79 (5.77)	29.61 (7.51)
성별×결혼준비교육	9.78**					
가족관						
성별	9.64**	M (SD)				
결혼준비교육	1.20		31.71 (5.53)	34.18 (5.36)	33.36 (5.62)	33.44 (6.25)
성별×결혼준비교육	8.45**					
사랑관						
성별	45.23***	M (SD)				
결혼준비교육	11.18***		75.47 (11.51)	85.14 (10.39)	82.27 (11.50)	84.03 (13.56)
성별×결혼준비교육	21.66***					
배우자관						
성별	16.58***	M (SD)				
결혼준비교육	208.78***		15.20 (5.82)	17.82 (6.02)	22.08 (2.24)	22.07 (2.39)
성별×결혼준비교육	12.31***					
성의식						
성별	50.07***	M (SD)				
결혼준비교육	201.07***		49.92 (6.93)	43.57 (7.91)	47.62 (7.65)	46.19 (7.58)
성별×결혼준비교육	20.05***					
성역할관						
성별	39.41***	M (SD)				
결혼준비교육	13.62***		19.57 (5.03)	23.44 (4.35)	22.56 (4.72)	22.98 (4.95)
성별×결혼준비교육	25.62***					

\*\* p&lt;.01      \*\*\* p&lt;.001

않았으나,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과 결혼준비교육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9.78$ ,  $p<.01$ ). 따라서 연구문제 1에 대해서 결혼준비교육이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결혼준비교육 실시 이후 남녀 대학생이 반대 방향으로 결혼관이 유의하게 변화됨으로서 남녀차가 좁혀졌다.

둘째, 가족관에 있어 결혼준비교육 실시 이전에는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개방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었으나(남학생: $M=31.71$ , 여학생: $M=34.18$ ), 결혼준비교육을 받은 후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매우 감소하였다(남학생: $M=33.36$ , 여학생: $M=33.44$ )(<그림 1>의 (2) 참조). 가족관의 변화에 대해 결혼준비교육 요인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의 주효과 및 성별과 결혼준비교육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8.45$ ,  $p<.01$ ). 따라서 연구문제 2에 대해서 결혼준비교육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대학생의 가족관을 변화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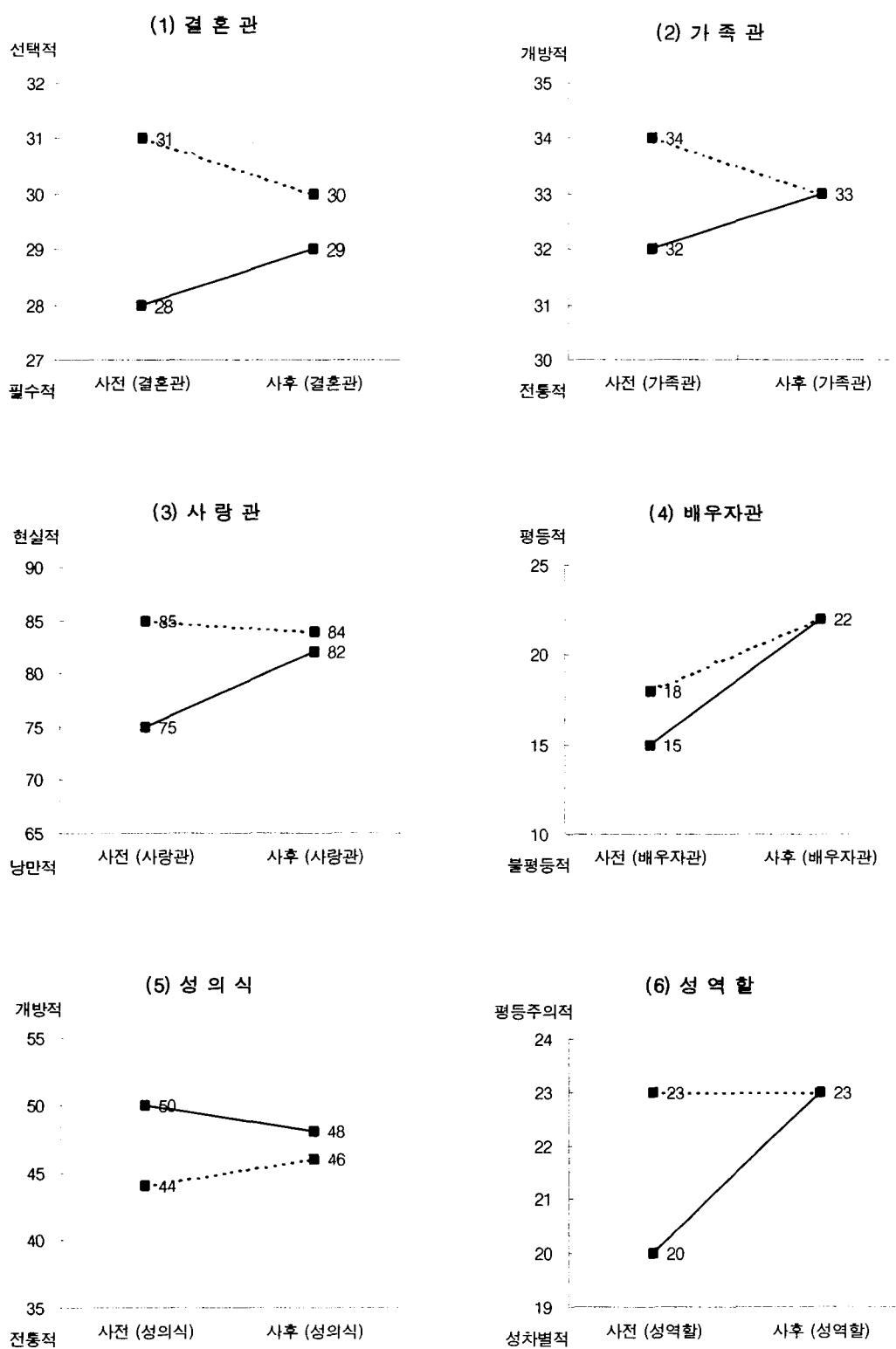
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준비교육 실시 이후 남녀 대학생이 반대방향으로 가족관의 변화를 보임으로서 남녀차가 좁혀졌다.

셋째, 사랑관은 <그림 1>의 (3)과 같이 결혼준비교육 실시 이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의해 현실적인 사랑관을 가지고 있었으나(남학생: $M=75.47$ , 여학생: $M=85.14$ ), 결혼준비교육을 받은 후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매우 감소하였다(남학생: $M=82.27$ , 여학생: $M=84.03$ ). 사랑관의 변화에 대해 결혼준비교육 요인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과 결혼준비교육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21.66$ ,  $p<.001$ ). 따라서 연구문제 3에 대해서 결혼준비교육이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사랑관의 차이를 줄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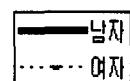
넷째, 배우자관에 있어 결혼준비교육 실시 이전에 여학생은 남학생에 의해 평등적이고 독립적인 배우자관을 가지고 있었으나(남학생: $M=15.20$ , 여학생: $M=17.82$ ), 결혼준비교육을 받은 후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매우 감소하였다(남학생: $M=22.08$ , 여학생: $M=22.07$ )(<그림 1>의 (4) 참조). 배우자관의 변화에 대해 결혼준비교육 요인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과 결혼준비교육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12.31$ ,  $p<.001$ ). 따라서 연구문제 4에 대해서 결혼준비교육이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배우자관의 차이를 좁혔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성의식에 있어 <그림 1>의 (5)와 같이, 결혼준비교육 실시 이전에 남학생은 여학생에 의해 개방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남학생: $M=49.92$ , 여학생: $M=43.57$ ), 결혼준비교육을 받은 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매우 감소하였다(남학생: $M=47.62$ , 여학생: $M=46.19$ ). 성의식의 변화에 대해 결혼준비교육 요인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과 결혼준비교육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20.05$ ,  $p<.001$ ). 따라서 연구문제 5에 대해서 결혼준비교육이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성의식의 차이를 줄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성역할관에 있어 결혼준비교육 실시 이전에 여학생은 남학생에 의해 평등적인 성역할관을 보였으나(남학생: $M=19.57$ , 여학생: $M=23.44$ ), 결혼준비교육을 받은 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매우 감소하였다(남학생: $M=22.56$ , 여학생: $M=22.98$ )(<그림 1>의 (6) 참조). 성역할관의 변화에 대해 결혼준비교육 요인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과 결혼준비교육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25.62$ ,  $p<.001$ ). 따라서 연구문제 6에 대해서 결혼준비교육이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성역할관의 차이를 좁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결혼준비교육 전후의 남녀 대학생들의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의 변화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인기 교양강좌로 실시되고 있는 결혼준비교육의 성별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부산 S대학의 <가족과 결혼>이라는 교양교과목을 듣는 약 6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받은 전후의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 등에서의 변화를 측정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관과 가족관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결혼준비교육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녀대학생들이 결혼준비교육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반대방향으로 나타남으로서 교육 후 결혼관과 가족관에 있어서의 남녀차가 줄었다. 둘째,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에 있어서는 성별과 결혼준비교육은 각각 변화를 나타냈으며,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하여, 결혼준비교육이 성별에 따른 사랑, 배우자, 성의식, 성역할 가치관의 차이를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 있는 결과들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단위식 결혼준비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외국연구에 의하면(Mace, 1981 ; Norem, 1980 ; Olson, 1983) 대단위식 결혼준비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결혼준비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해본 결과,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의미있는 결과는 성별이 결혼준비교육의 효과성에 주요한 변수라는 점으로, 이는 박말순(1998), 이재림 외 2인(2002)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준비교육의 효과성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결혼준비교육 후에 보다 선택적인 결혼관과, 개방적인 가족관, 현실적인 사랑관, 평등적인 배우자관, 덜 개방적인 성의식, 평등적인 성역할관을 갖게 되었다. 이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변화가 적다는 기존의 연구(박말순, 1998)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성역할관의 경우 성차별적인 가치관이 결혼준비교육 이후 평등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한 부분은 교육 이후 폭력적 성향의 감소를 가져온 Markman(1993)의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결혼준비교육 이후 남녀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의 방향성 문제이다.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성의식, 성역할관은 결혼준비교육 이후 남녀학생들의 가치관이 각기 반대방향으로 변화하였지만, 배우자관은 남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후자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보다 더 평등적인 배우자관을 갖게 되었다. 결혼준비교육을 통하여 여학생은 선택적인 결혼관에서 필수적인 결혼관으로, 가족관은 덜 개방적인 가족관으로, 사랑관은 현실적인 것에서 낭만적인 가치관으로 각기 변화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의 여성들이 차별적 성역할관이 파괴되어 가

는 사회적분위기에 편승해서 다소 앞서가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결혼준비교육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관점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남학생 역시도 교육을 통해 선택적 결혼관, 개방적 가족관, 현실적인 사랑관, 평등적인 배우자관, 덜개방적인 성의식, 평등적인 성역할관등 보다 현실적인 관점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의 중요한 의미는 반대방향이든, 같은 방향이든, 결혼준비교육 실시 이후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의 모든 영역에서 이전의 두드러진 남녀차이가 감소된 점이다. 이는 결혼준비교육이 이성교제나 부부생활에서 성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책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상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집단의 부재로 인한 한계로서, 향후 연구에는 상이한 강좌 및 유사강좌를 수강하는 통제집단과의 비교가 필요하겠다. 둘째, 각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보다 세련된 도구가 개발되기를 바란다. 일부 문항은 성중립적이지 않았으며 내적 일관성이 기대보다 낮기도 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가 부산지역의 한 대학교에 한정되어 동질적이며, 3명의 강사가 모두 여성인 점 등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넷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사례로 선정된 점, 2학년에 편중된 점 등도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제언을 한다면 첫째, 결혼준비교육의 장기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여러 시점에 걸친 추후검사를 통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이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결혼 전 교육이 실시되었으면 한다. 셋째, 대단위식 강좌 형태에 부분적인 소그룹 형태의 강의 도입이 대단위식 강좌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증가추세에 있는 이혼 및 결혼문제를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예방하거나 중재하는 잠재적인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기에,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또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4년 04월 25일
- 심사일 : 2004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7월 30일

### 【참고문헌】

- 강경아(2002). 미혼여성의 결혼준비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부설행동과학연구소(2000). 심리체도 핸드북. 학지사.  
 고영철(1985).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신, 김오남, 윤상희(1997).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

- 도 및 배우자 선택조건. *대한가정학회지*. 35(3). 15-30.
- (1995). 대학생의 사랑에 대한 태도와 성의식. *가정과학 연구*. 5. 119-132.
- 김경신, 김오남, 이선미(1995). 미혼남녀의 배우자 선택 조건 및 관련 요인 분석. *가정과학연구*. 5. 103-117.
- 김경신, 이선미(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1). 27-43.
- 김광률(2000). 기독교인 결혼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난희(1999). 그리스도인을 위한 결혼 예비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소그룹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희(1999). 공주대학생의 성과 사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 연구. *공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4(1). 15-41.
- 김정옥(1995). 결혼과 가족. 학지사.
- 김혜석(1990).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선(1992). 배우자선택과정과 결혼적응도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선·신수아(2002). 결혼준비도 척도 개발 연구-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3). 41-53.
- 김혜선·한은주(1998).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평가를 위한 척도 개발(II). *한국방송대학교 논문집*. 26. 397-416.
- 김혜정(1997). 예비부부를 위한 관계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말순(1998). 결혼준비프로그램이 예비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1997).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은주(1996). 대학생의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집단상담효과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한기(1997). 연애와 결혼에 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연구 논문집. 55(1). 225-259.
- 오윤자(2001). 교육학적 관점을 기초로 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09-135.
- 유영주·오윤자·이정연(1995).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I. *경희대학교논문집 자연과학편*. 24. 147-171.
- 이기숙·공미혜·김득성·김은경·손태홍·오경희·전영주(2001). 결혼의 기술. 서울: 학지사.
- 이선희·한성현·이명선·조희숙·채유미·유승현(2000). 미혼남녀의 성형태 및 성의식 관련 요인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7(2). 1-15.
- 이은준(1994).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획일화 현상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림·옥선화·이경희(2002).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 이해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37-49.
- 이지은(1993).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영(2002). 결혼준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향·김득성(2001). 결혼 전 관계향상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69-83.
- 정민자(1996).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34(4). 373-391.
- 차정화·전영주(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신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22. 115-135.
- 통계청(2004). 2003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보도자료.
- 한남제(1987). 대학생의 가족의식. *평화연구*. 12(1). 119-147.
- 홍달아기·박경옥(2000). 대학생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생활자원개발연구*. 2. 12-33.
- 홍달아기·신현실(2001). 교과과정으로서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W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4(2). 29-47.
- Arcus, M.E., Schvaneveldt, J.D., & Moss, J.J.(1993). Thenation of family life education.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Vol. I*. Sage Pub.
- Avery, A. W., C. A. Ridley, L. A. Leslie, and T. Mulholland(1980). Relationship enhancement with pre-marital dyads: a six-month follow-up. *Amer.J. of Family Therapy* 8. 23-30.
- Bader, E., Microys, G., Sinclair, C., Willett, E., & Conway, B.(1980). Do marriage preparation programs really work? A Canadian Experi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6. 171-179.
- Buckner, L. P. & Salts, C. J.(1985). A premarital assessment program. *Family Relation* 34(4). 513-520
- Carroll, J.S.; Doherty, W.J.(2003).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Premarital Prevention programs: A Meta-Analytic Review of Outcome Research. *Family Relations* 52 (2). 105-118.
- Collins, G. R. 파현희·이혜련 역(1993). *크리스찬카운셀링*. 서울: 두란노출판사.
- John Gray 김경숙 역(2002).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친구미디어.
- Markman, H. J., Renick, M. J., Floyd, F. J., Stanley, S. M., & Clements, M.(1993). Preventing marital distres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training: A 4- and 5-year follow-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70-77.
- Nickols, S. A., Fournier, D. G. & Nickols, S.(1986). Evaluation of preparation for marriage workshop. *Family Relation* 35(4). 563-572.
- Olson, D. H.(1983). How Effective Is Marriage Preparation? *Prevention in Family Service*, ed. Mace, D. R.(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65-75.

Stahmann, R.F.,& Salts, C.J.(1993). Educating for Marriage and Intimate Relationships.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Vol.2*. Sage Pub.